

주와 같이
걸어온 길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70년사

주와 같이 걸어온 길

안성제일교회 70년사
편 찬 위 원 회 지 음

주와 같이 걸어온 길

지은이	안성제일교회 70년사편찬위원회(빌드업 70)
펴낸이	담임목사 이선진
1판 1쇄	2020년 12월
펴낸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디자인	디자인리더
캘리그래피	송영광 목사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2길 43
전화	031-673-3600
팩스	031-673-3601

안성제일교회 www.afmc.or.kr



A photograph of the Anseong Frist Methodist Church, a modern building with a prominent wooden cross on its roof. The church is situated in a cityscape with various buildings and hills in the background. The title "ANSEONG FRIST METHODIST CHURCH" is overlaid in white text on the image.

ANSEONG FRIST METHODIST CHURCH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PART 1. 안성제일교회가 걸어온 길

- 10** 안성감리교회의 시작, 1950~1979
전쟁 중에 시작된 교회 (1950~1959)
교회의 성장(1960~1979)
- 24** 큰 부흥, 1980~1994
질적 및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룬다 (1980~1984)
부흥 그 이후 (1985~1994)
- 38** 위기인가? 성장통인가?, 1994~2003
복음 전파와 성전 확장을 꿈꾸다(1994~1997)
성령의 힘으로 회복되다 (1997~1999)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다(1999~2003)
- 50** 새 일을 위한 교회의 변화, 2003~2014
회복의 첫 단추를 꿰다 (2003~2005)
영적 성장으로 인한 변화들 (2006~2014)
- 68**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2015~2019
시대에 발 맞추어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대 간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다양한 목회로 바라본 교회
하나님 안에서 배우길 힘쓰는 교회
- 8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들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창립 70주년 & 6.25전쟁 70주년
- 92** 혈몬의 이슬처럼
(또 다른 70년 - 분단의 아픔을 복음 통일로)

PART 2.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96** 감사의 글
안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98** 축사
김형석 목사
최한정 목사
류승빈 목사
장금식 목사
- 102** 축하의 글
하늘품교회 박주호 담임목사

PART 3. Cultivate - Cure - Care - Change

- 108** 안성제일교회의 가치 - 4C
- 110** Cultivate: 경작
예배와 생활
- 118** Cure: 치유
말씀과 기도
- 124** Care: 돌봄
교육과 가정
- 132** Change: 변화
선교와 나눔
- 140** 안성제일교회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PART 4. 부록

- 144** 연혁
- 150** 역대 담임목사, 역대 장로
- 154** 현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156** 주보의 변천사
- 158**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 160**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1
- 162**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2
- 164**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3
- 166** 한눈에 보는 안성제일교회의 변화
- 168** 주와 같이 걸어온 길

PART. 1

안성제일교회가
걸어온 길

안성감리교회의 시작 1950~1979

큰 부흥 1980~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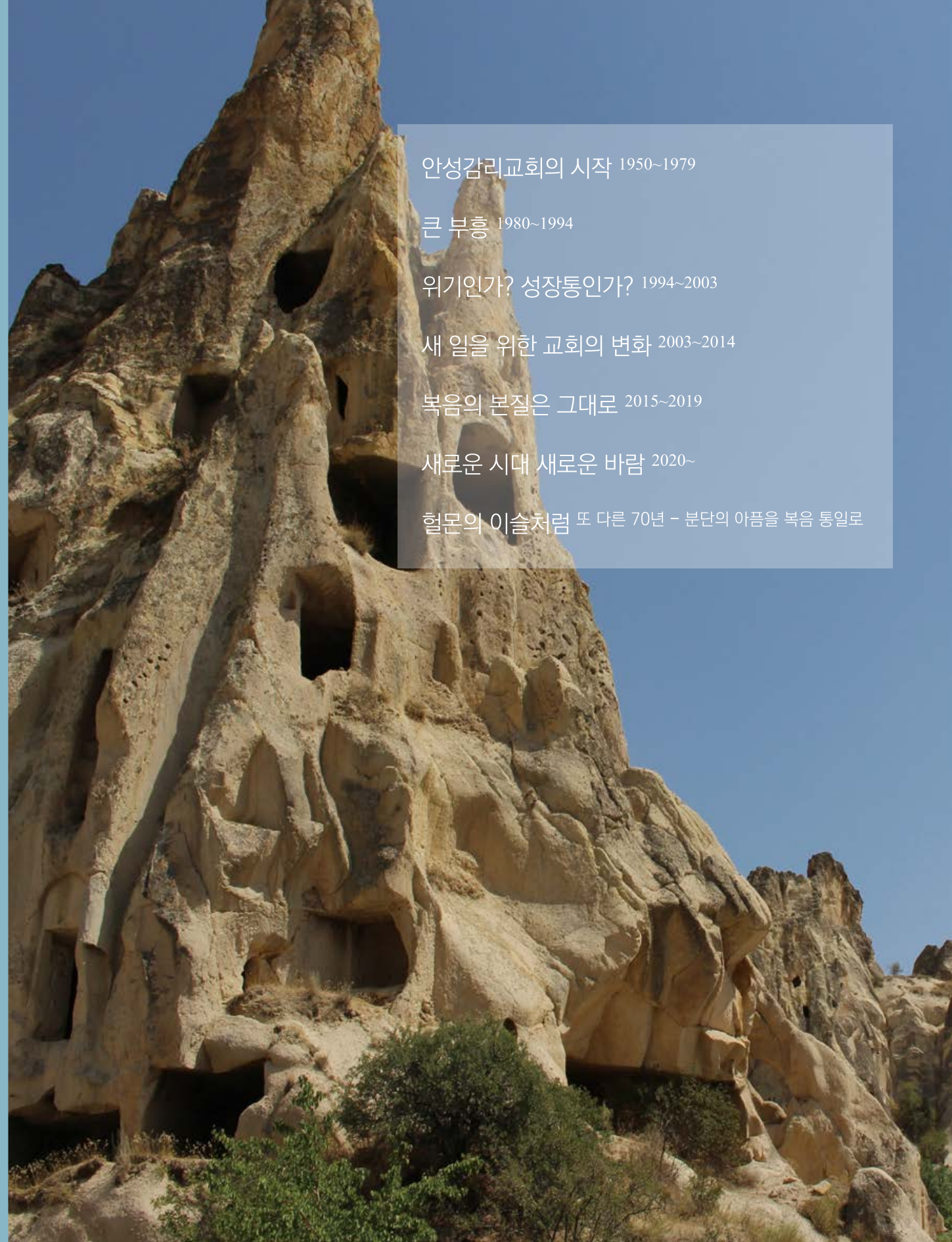
위기인가? 성장통인가? 1994~2003

새 일을 위한 교회의 변화 2003~2014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2015~2019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 2020~

혈문의 이슬처럼 또 다른 70년 - 분단의 아픔을 복음 통일로





▼ 금광면 신양북리 이영예 권사 댁의 현재모습

안성감리교회의 시작 (1950 ~ 1979)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
손창록 목사가 서울에서 안성으로 내려와 수명의 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안성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전쟁 중에 시작된 교회 (1950~1959)

안성제일교회의 첫 예배는 1950년 9월 20일 금광면 신양북리에 있던 이영예 권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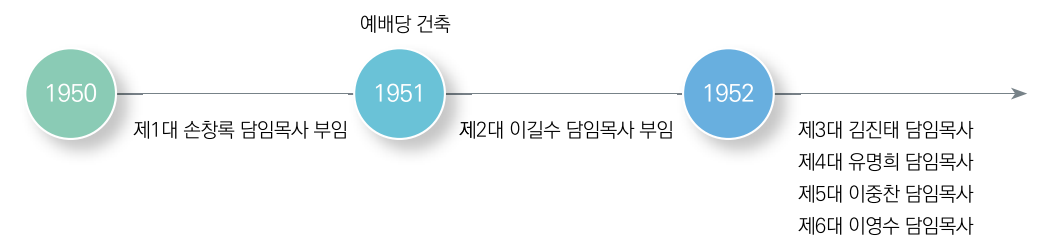


▲ 금광면 신양북리 이영예 권사 댁의 현재모습

이듬해 봄, 천안지방 김영배 감리사의 주선으로 안성을 영동에 기와집 일곱 칸을 장만했고, 각처에서 피난 온 감리교인들이 모임으로써 안성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이길수 목사가 제2대 목사로 부임하고, 양근식 권사와 장경옥 부부를 중심으로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6~7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1960~1979)

1964년에는 황소향 장로님이 천안 지방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으셨습니다.



▲ 황소향 장로 취임식 기념 (1963. 04.16)



▲ 황소향 장로 회갑 축하 예배후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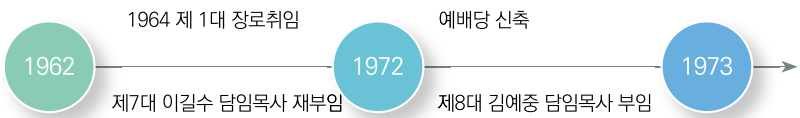
눈물과 땀이 섞인 교회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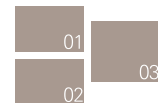
교인의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 신축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던 황소향 장로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성읍 동본리 459번지에 대지 243.1평을 구입하여 교회에 헌납하셨고, 이로써 1972년, 약 180명의 교회 신축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난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전 교인이 합심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신축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셨던 이길수 목사님이 새벽기도 중에 과로로 쓰러지셨고, 이후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973년 8월, 모두가 바라던 예배당이 완공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이웃 교회의 임종명 목사님이 입당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당 완공은 기쁜 일이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지 못하셨기에, 입당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신축 이후 교인 수는 장년회가 약 180명, 유년부가 약 120명까지 늘어 주일마다 300여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 01 이상빈 목사 부흥회 기념 (1961년 10월)
- 02 나운용 장로 부흥회 기념 (1963년 2월)
- 03 김성남 목사를 강사로 모신 심령대부흥회 (1969년 3월)



▲ 이길수 목사 회갑기념예배 중 가족찬양 모습 (1969년)



▲ 이길수 목사 회갑기념 예배 후 식사 모습 (1969년)



▲ 김여중 목사 시절 찬양대원들과 함께 (1978년)



▲ 동본동 교회 신축 후 예배당 앞에서 (임무빈 장로와 정두해 선교사)



▲ 주일학교 등반예배 기념 (1978년)



▲ 황소향 장로 댁에서 (1979년)



01	02
03	04

- 01 부활절 예배 후 청년부원들의 기념촬영
- 02 부활절 기념 음악경연대회 모습
- 03 성남동 예배당에서 다과회 모습
- 04 기도하는 이길수 원로목사



큰 부흥 (1980 ~ 1994)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서 3:2)

1980

제9대 박영준 담임목사 부임

질적 및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다 (1980~1984)

1980년 9월 박영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했고,

적극적인 전도로 교인 수가 크게 증가하여 예배당을 증축하였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다

박영준 목사님은 평소 열정적인 기도생활을 몸소 보여주셨고,

목사님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요철야예배는 다음 날 이른 새벽까지도 이어져,

일부 성도들은 철야예배를 마치고 바로 새벽기도를 연이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에너지가 교회의 부흥으로

매년 12월에는 ‘총동원 전도 주일’을 실시하여, 장기 결석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고, 성도들은 각자 한 명씩 전도하며 지역 사회의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1981년 12월 20일, 첫 총동원 전도 주일에는 500명을 돌파하였고, 이후 4년간 450여명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였습니다. 특별히, 1986년 12월 23일 총동원 주일에는 출석 인원이 900여 명을 기록하여, 성탄을 앞두고 큰 기쁨을 앞서 맛보았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을 위해 일부 성도들은 선물을 기증하기도 하였는데, 기증된 선물은 새신자들에게 환영의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 1983년 1월 신천임원취임 축하예배



▲ 1983년 지방부흥대성회



▲ 1983년 1월 안성감리교회 제1회 어린이 겨울성경학교기념

눈물과 땀이 섞인 교회 증축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경험한 우리 교회는
1981년부터 예배당 증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헌금이 쌓인 뒤, 1983년 6월 15일, 증축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사는 1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준공 후 모든 성도는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84

교회명칭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로 변경

1984년, 드디어 ‘안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증축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던 1984년 4월 15일,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교회’에서
‘안성제일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2020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1984년 증축 준공 후 모습



▲ 1984년 1월 신천임원취임 기념사진

부흥 그 이후 (1985~1994)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 1985년 겨울성경학교 기념사진



▲ 박영준 목사와 청년부원들

채우고 나누다

1986년에는 모든 성도가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전교인 신·구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를 통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재건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이 성경 읽기 운동은 박영준 목사님의 부임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채우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는 '밀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밀알 선교'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성도들은 매월 1,000원의 헌금을 드렸고, 이 헌금은 안성의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을 돕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봄·가을 효도관광

노년 세대를 위한 효도관광이 1987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의 길을 앞서 걸어간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셨고,
효도관광이 또한 전도의 창구가 되어 노년 세대의 재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창립 40주년: 제2감리교회를 설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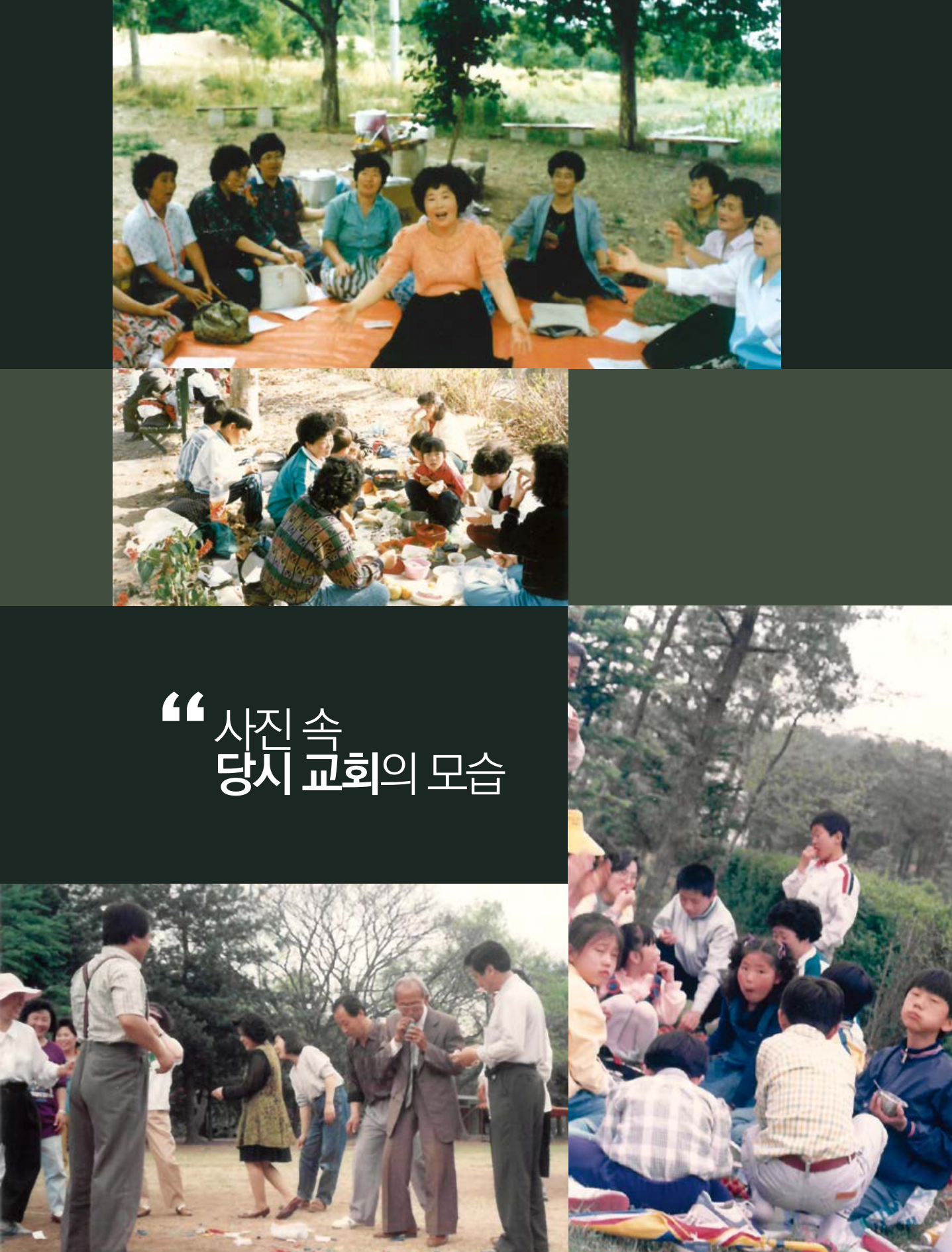
1990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개척 교회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산리에 대지 54평을 구입하여 1992년 안성 제2감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 교회에 부임한 박주영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취임하시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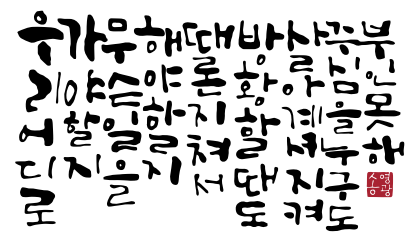
이 교회에 우리 교인 30가정을 파송하였고,
제2감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1994년 박영준 목사님은 그렇게 14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후 이임하시고
이천중앙감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 1985년 겨울성경학교 기념사진



“사진 속
당시 교회의 모습



“사진 속 당시 교회의 모습





위기인가? (1994 ~ 2003) 성장통인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전 확장을 꿈꾸다 (1994~1997)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23)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서는 교회

1994년 9월, 부임하신 한순동 목사님은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서는 교회 (골 1:23)'를 표어로 삼고, 당시 재적 인원이었던 1천여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에 도끼리 담 10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은 성전 확장을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994

제10대 한순동 담임목사 부임



분열? 또 다른 형태의 성전 확장

한순동 목사님은 선교 및 친교활동을 통해 성도들과 친밀감 있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 금요심야예배를 위해 '프라미스 찬양단'이 결성되었고 성도들은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잦은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목사님은 1997년 2월, 세 분의 장로님, 2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봉산동에 안성감리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는 한 교회가 절반으로 나뉘어 두 개의 다른 교회가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지 : 1000평<구입가 4억>, 현금 : 2억, 송인연립 : 6천만 원, 승용차 : 약 2천만 원) 분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또 다른 형태의 성전 확장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회복되다 (1997~1999)

큰 풍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영적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1997년 2월 말에 새로 부임하신 한도전 목사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평안지방회 감리사로 계셨던 한도전 목사님이 제1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이후,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특별새벽기도회를 총 3부로 늘려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공부, 부흥회, 전도학교, 안성제일 가족 만남의 축제 등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셨습니다.



1997

제11대 한도전 담임목사 부임



세상 속 교회의 역할과 책임

1997년도에는 제주 광령 감리교회로 M.Y.F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를 수련회 장소로 정한 이유는 우리의 역사 속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독교 역사의를 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 또한 잘 감당해 나가야 함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의 메세지

1997년 부임 첫 해를 회고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성도들을 격려했던 한도전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듬해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1997년은 아드께 보다는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뜻밖의 경제공황과 함께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사회불안이 뒤따라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온란스러운 대동령 선거를 치루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대기업에서 조그만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국가경제의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인 단계를 접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앞장서서 이 난국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말에 안성제일교회에 부임한 저는 그동안 삼척방은교회의 치유와 안정을 되찾는 사명의 힘으로 먼저, 동시에 21세기의 장을 여는 성령의 사명에 순응하는 교회라는 표지를 내어놓고 우리교회의 내외적 선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오솔길과 이파리 등시에 저의 목회와 대한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의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저는 아직 '성령대방정' 특별기도회와 '제이제' 특별기도회, '참담' 47주년 기념 야외예배와 체육대회에서 보여주신 다정다감함과 사랑을 저는 지금도 재확인합니다. 특별히 지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안성제일' 가족 만담의 추경, 역사 확인전전도와 영혼 구원의 대한 온 성도님들의 뜨거운 동참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입니다. 이 길수목사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년 1월 9일(금) '속회부흥과 재회교회의 성립을 위한 선교대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도 온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성회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성탄절에

담임목사 한도전

祝 聖 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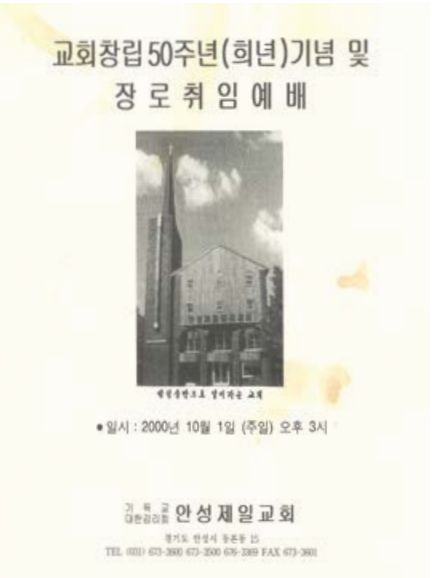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다 (1999~2003)

2000년도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성경속에서도 ‘제 50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해로,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은 탕감되며 땅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즉, 총체적 안식, 공동체 전체의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였습니다.

희년, 주의 은혜의 해

1999년 7월에 한도전 목사님이 이임하시고, 이후 권영국 목사님이 제1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권영국 목사님과 함께 맞이한 2000년은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
희년의 해였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과업이라 하셨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온 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어 기념 예배를 드렸고, 장로 취임 예배
및 초청 찬양 간증 집회, 심령 대부흥회 등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로 안성 시민회관에서 Handel의 Messiah 음악회를 열어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도 선교의 대상으로

권영국 목사님은 지역 및 해외선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을 위한 어린이 캠프와 어린이 부흥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M.Y.F 연합 수련회, 찬양대회, 문화축제 등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신앙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집중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신세대 기독교 교육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약 4년 간의 목회 기간 중,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목사님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부 성도들과 함께 공도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하시고 2003년 7월 말에 이임하셨습니다.



새 일을 위한 교회의 변화 (2003 ~ 2014)

2003년 여름, 교회가 또 한번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실수, 실패. 아픔. 미움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중이었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말씀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를 가져왔고,
예배가 정착되자 교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첫 단추를 꿰다 (2003~2005)

2003년 7월 권영국 목사님이 공도제일감리교회로 떠나시고

8월 김형석 목사님이 13대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

김형석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53주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였습니다.

2003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신앙여행)”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자’, ‘무너진 사랑을 세우자’, ‘무너진 비전을 세우자’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는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형석 목사님의 부임은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시19:20)”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를 가져왔고, 예배가 정착되자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

제13대 김형석 담임목사 부임

영성훈련원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에 TD라는 영성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과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제자훈련원'의 교재로 단계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가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본질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로 다시 일어서야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창세기 강해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또한 사순절과 강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신앙 성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세이레의 기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등 특별 새벽기도회만 참석해도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여도 얼마든지 개인의 신앙과 인격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사각지대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교회는 3,40대의 참여가 많아지므로 더욱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노년부 성경학교의 시작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2005년 7월 12일에 노년부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 성경학교의 추억을 떠올리며 학생이 되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0~50대는 섬김이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 세대 간에 교류와 사랑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 주보접기, 꽃꽂이, 교회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

‘성숙’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닌, 진보나 발전, 즉 과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열심히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수요일에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TBC 성서연구를 시작하였고, 성경의 맥을 잡아라, 크로스 웨이, 친구약 파노라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설교로, 세미나로, 예배학 교수를 초청해서 다양하게 예배를 훈련했습니다. 언제라도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제일교회 예배는 단순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자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 공동체를 만든다

영성훈련(TD)과 제자훈련으로 치유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나니 이런 중요한 신앙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알파코스는 전도와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알파코스를 진행하여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그룹 교육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교육받은 성도들로 속장, 교사, 부서장을 세워 각 부서를 이끌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고 이는 담임목사로부터 교인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수평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으로 인한 변화들 (2006~2014)

앞서 말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신앙의 본질,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첫째,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지 말자”

둘째,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하자”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수단에 불과한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져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발적인 사역으로 이어지다

제일 먼저 소그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훈련을 경험한 성도들이 속회 안에서 삶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소그룹을 경험하는 전도 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속회가 부흥하여 여러 속으로 나누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만들어서 성도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사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열정

전도를 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 오이코스, 전도폭발, 바나바 같은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화요 전도대를 만들어 전도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부침개 전도를 하였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2006년부터 매년 가장 큰 행사로 새 생명 축제를 하여 온 교회가 전도에 관심을 가졌고 2011년 5월에는 전도 신문을 발간하여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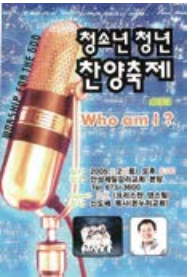
성도들의 수와 함께 아이들도 늘어나 주일이면 4대의 승합차가 다 운행을 해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의 수요중보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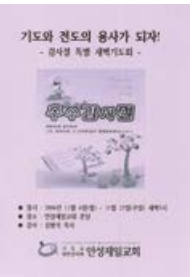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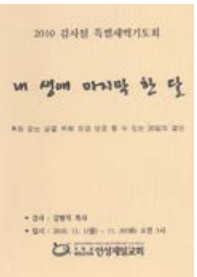


다양한 목회의 흔적

문화행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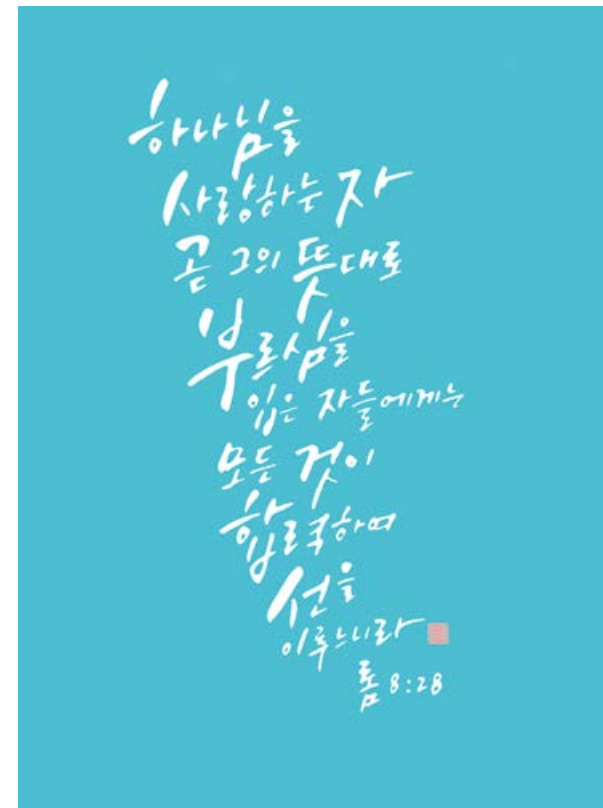


수련회 및 새벽기도 ▶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하여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고, 이로써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가족 영화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등,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정 안에 사랑을 회복하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하여

이 시기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예배 성경을 새 번역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 내 성경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당회에서 개역 개정과 새번역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한 결과, 모두의 찬성으로 성경을 새 번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깊이 깨달아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중된 예배를 위한 예배실 리모델링

새 성전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예배실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하여 예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의 예배실은 노후되고 어둡고, 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밝은 모습으로 디자인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공사 기간이 하루도 늦어지지 않게 정확한 시간과 예산으로 2012년 9월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신앙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실에서 훨씬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목사님에게 안성제일교회는...

2003년 8월 17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 11년 5개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며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에 상처 입은 교회였지만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하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담임 목사를 신뢰해 주었고, 어떤 것들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안성제일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70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 안성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2015~2019) 그대로

시대에 발 맞추어 성장하는 교회

제 14대 류승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이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유지하되 외형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보여주는 성찬식의 정기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자 하였던 안성제일교회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영적 습관을 위하여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찬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정기적인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5

제14대 류승빈담임목사 부임



전교인 큐티 운동, 말씀을 기초로 삼아 굳건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류승빈 목사님께서서는 안성제일교회의 온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수 있도록 '전교인 큐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이 큐티 운동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포용

우리 교회는 전통적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도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현대적인 예배를 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대예배 폐회송에 세션팀이 투입되어 성도들이

힘차게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길러 내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기에, 교육부 사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를 위한 예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길러 내기 위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교자 교육관 건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무빈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5월 28일,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교육관 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은 기쁨과 설렘이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자금을 위한 여선교회 바자회가 열렸으며 많은 성도들이 건축헌금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더불어, 교회 본관도 리모델링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관 내부와 외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예배 참석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 교육관 1층



▲ 교육관 2층



▲ 교육관 3층

온 성도가 그토록 기다리던 교육관이 멋지게 완공되었고, 2018년 4월 1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한 이후,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들이 교회 안으로 차츰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교육부는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관 2층 예배실



▲ 교육관 3층 예배실



- 01 교회 계단
- 02 교회 엘리베이터
- 03 1층 식당
- 04 2층 로비
- 05 3층 예배실



세대 간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안성제일교회는 하나님 사랑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두터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울림 특 : 세대 간 연합의 즐거움을 만끽하다

다양한 연령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어울림 특'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조별 활동, 캠프파이어 등을 하며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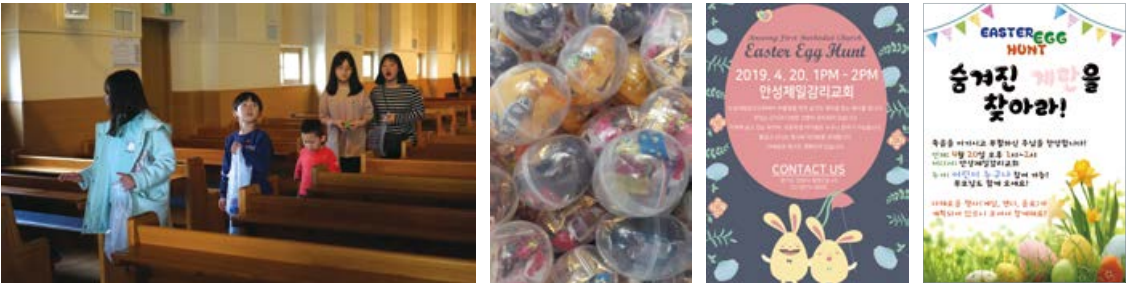
'어울림 특'은 1박 2일로 초동수양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기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시작되었던 어울림 특은 다양한 방법으로 2019년까지 이어졌으며 세대 간의 소통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지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다양한 목회로 바라본 교회

안성제일교회는 교육과 선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안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주간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정작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Easter Egg Hunt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부활절 하루 전날 가족들과 함께 부활 계란을 찾는 행사로, 온 가족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1인 1사역, 9 to 9 기도운동 사역

이중 삼중의 봉사로 일부 성도들은 지쳐가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한 성도들은 섬길 때 오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사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이 소개되었고, 많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9 to 9 기도 운동은 일상기도 운동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 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온 성도들은 9 to 9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테네브레 촛불 예배와 EASTER EGG HUNT

테네브레는 교회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드러진 성금요일 예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배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우길 힘쓰는 교회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13-14)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 봄 가을 성경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봄 가을 성경반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단계별로 마련된 신앙 훈련 코스로써,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 기초성경공부, 제자훈련, 영성훈련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장시간 이루어지는 성경공부는 집중도가 떨어지지만, 봄과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져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의 성경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로 인해 많은 상처와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이 바로 가정 회복의 첫걸음이기때, 우선적으로 교회 안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2020~) 새로운 바람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주일 예배의 모습

2019년 12월, 제 15대 이선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무섭게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회는 많은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혹시 모를 위험이 될 수 있기에,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

제15대 이선진 담임목사 부임



교회 학교의 온라인 예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예배 외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욱 관심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여름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앞두고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매년 어린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는데,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접촉을 최소화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치부는 각 교사들이 아이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성경학교 키트를 전달하였고,
유초등부는 유튜브와 밴드 라이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였지만,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흩어진 공동체의 삶

이선진 목사님은 '모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지키며, 각자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나누는 것에 더욱 힘쓰기 위해 교회는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변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기부하고, 캄보디아 조이풀스쿨을 후원하였으며, 일부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교인들의 사업장을 방문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웃들의 필요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교회 내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목요전도대는 코로나로 전도를 나가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로 나가 청소를 하고,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집기를 들어내고 필요한 물품을 모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립 70주년 & 6.25전쟁 70주년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과 동시에 6.25전쟁 70주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분단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대대를 위로하고자,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한 현금으로 770여명에게 햄버거 세트를 보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JSA가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70년

분단의 아픔을 복음통일로



안성제일교회의 70주년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돌려보내시는 시간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전쟁 발발이 있었던 그 해 9월에 주일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성제일교회는 더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롭게 펼쳐질 평화통일을 꿈꾸는 교회로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분단 이후, 70년이란 시간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민족이라는 상징만이 존재할 뿐, 가치관과 체험 등에서 어떠한 공감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꿈꿀 수 있을까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즉 남한과 북한 사람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서 온 이들이 약 3만 5천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한으로 북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통일의 빔장을 이미 열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

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관심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때를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약 3만 5천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관심하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통해 완전한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혈몬 산이 소개됩니다. 한 편은 차갑고 습한 바람이 오고, 반대는 사막의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새로운 하나 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슬이라는 수분이 되어 ‘혈몬의 이슬’은 시온에 내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혈몬의 이슬’ 시온 산을 적시고, 그곳은 풍요로 가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풍요로움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가득함과 같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도, 전쟁의 상처가 있었고, 서로에게 미움과 적대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혈몬 산에 불었던 찬바람과 더운 바람처럼, 서로의 마음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만나자 새로운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연합하고 함께 누리며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다고 탄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새로운 모습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으로 흘러, 온 열방으로 이어지는 풍요로움과 같은 영생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70년의 분단 가운데서 너무도 다른 체제와 사회문화를 살아 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서로를 적대시 했고, 왕래 없이 전혀 다른 방향과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교육받으며 그것이 삶에 형성된 공동체이고, 남한은 반공과 신앙,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삶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은 민족 정체성도 이질화시켰고, 한민족이라는 감정도 달리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평화통일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렇게 다른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어떻게 하면 통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혈몬의 이슬”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혈몬에서 만나는 차고 습한 바람과 덥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모습이 서로를 통해 녹아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자 하

는 마음이 될 때, “혈몬의 이슬”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시온에 내리는 복 된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통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요, 준비해야 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의 가능자는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을 남한에, 남한을 북한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함께 서로가 존중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사는 평화통일입니다.

둘의 차이가 녹아져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혈몬의 이슬”과 같은 새로운 통일공동체입니다.

서로 달랐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 “혈몬의 이슬”이 되어, 세상에 내려질 때, 그곳을 영원한 생명의 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시편 133:3)

이 민족이 “혈몬의 이슬”이 될 때, 열방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한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안성제일교회는 새로운 평화통일의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기 위해, 향후 복음통일위원회를 개설하고, 복음통일학교를 개설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위한 교육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매주 구국기도회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교회와 가정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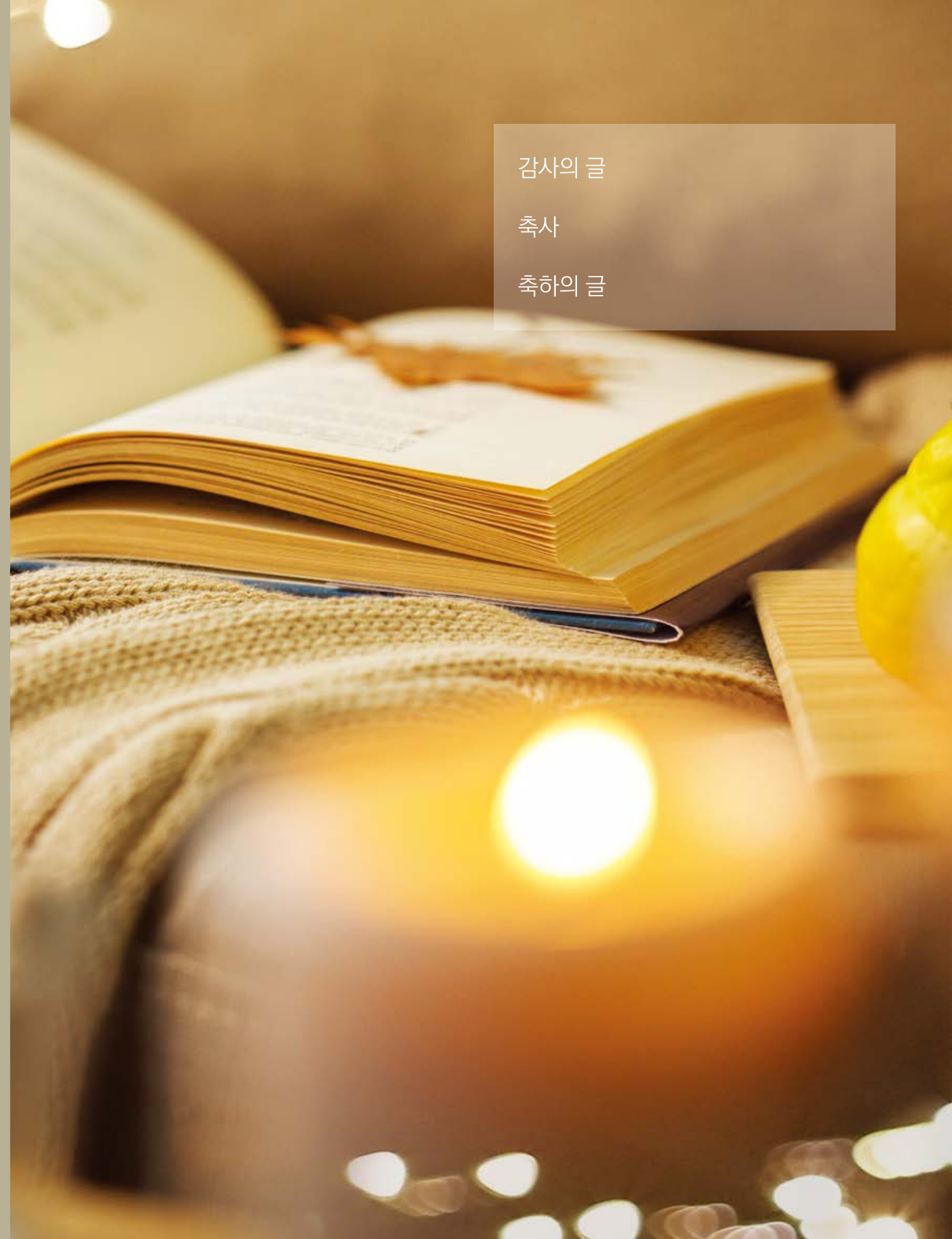
PART. 2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감사의 글

축사

축하의 글



감사의 글



안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선진

안성제일교회 담임목사로 2019년 12월에 부임을 하고, 2020년 새해를 맞았을 때,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70년 기념행사를 계획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축소하고,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70년 사책 출판은 코로나19가 지속될 때도, 계속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판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의 걸음을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70년이 되는 해에, 담임목사로 있어서, 부족한 제가 글을 씁니다.

이 모든 걸음에 오직 주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은 목회자, 성도들의 어우러진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70년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상합니다. 그 길을 상상할 수 있는 다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앞으로 걸어갈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가 앞으로의 교회요, 성도들의 지금 행함이, 성도들의 지금의 아픔과 기쁨이 앞으로의 교회입니다.

다양한 지금의 성도의 삶에 있는 희로애락이 말씀 안에서 녹아져, 믿음의 동행을 만들고, 그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오직 앞 만보며 경쟁 속에서 살던 이들이, 동행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교회.

외로운 이들이, 동행의 만남속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꿈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꿈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택했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공공기관의 수고에 감사를 하러 찾아 가고,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때 체류가 만료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마스크를 나누어 마스크가 수백장 모아졌고, 큰 금액이 모아져 생필품 키트를 아낌없이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비 대면으로 예배를 이어가다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방역수칙을 지키며, 워킹 스루로 교회의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의 헌신과 준비하는 바쁜 소리, 그리고 반가운 얼굴의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사람으로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전도를 나가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거리로 나가 청소를 합니다. 지나가던 경찰관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회에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성도님 집에 전소 된 소식을 듣습니다. 한걸음에 달려가 집기를 들어내고, 선교회별로 여러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모아 가져다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도 힘든 상황인데 주저 없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조용히 흘려보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들이 3개월을 이겨냈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최전방 JSA경비대대의 위로를 부탁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한 헌금으로 770명에게 햄버거 세트를

보냅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힘든데, 남에게 눈을 돌리고 나누는 기쁨은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청년의 날,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했습니다. 축하하는 청중은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한 사람이 끝나고 돌아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했습니다. 문답하고, 세례를 주고, 문답하고 입교 예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질문과 축하는 그 어느 때보다 귀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과 이 세상을 살아낼 참 귀한 보배들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혼자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20분을 훌쩍 넘기십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예전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지나온 세월을 전화 안에 담아내시기에 바쁘십니다. 한참을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요, 이런 늙은이에게 전화 줘서.”

부활절을 맞아 떡과 계란을 가지고 오래토록 오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다가가 안아드리지 못했지만, 작은 것을 건네는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 챙기려고 이 멀리까지 와주어서 고마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아는 곳. 그 한 영혼도 잊지 않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안성제일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걸어갈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은혜와 생동감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는 교회이기를 여전히 꿈꿉니다.

안성제일교회 70주년 기념 축사

김형석 목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안성제일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역사박물관입니다. 야드바셈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쁜 역사이든 고난의 역사이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제일교회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성숙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70년사가 지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안성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70주년과 7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성제일교회 70주년 기념 축사

최한정 목사

안성제일교회 7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담임자로 섬겼던 8년 3개월이 꿈만 같은데, 지금의 목양지로 이임해 온 후 섬겼던 만큼의 시간이 흐른 지금 70년사 발간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안성제일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흠어져 주님 사랑 흘려보내기에 열심인 교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교회로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70년 세월을 숨 가쁘게 때로는 굴곡 가운데 지나온 안성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100년의 교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성제일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성제일교회의 제14대 담임목사로 사역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사랑과 기도로 섬겨 주시고 지지하여 주신 모든 교우들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원로/시무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성제일교회에서의 지난 5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미국에서 막 귀국하여 인천공항에서 바로 안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임무빈 장로님과 이병주 장로님(당시 권사)들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늦은 밤 안성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부터 유치부 겨울성경학교에 참석했던 기억도 즐거운 추억입니다. 몇 달 만에 피로 누적으로 설교 도중 쓰러져서 교우 여러분을 놀라게 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작한 안성제일교회에서의 목회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성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에너지’입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열정적인 예배와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야말로 안성제일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교육관을 건축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늘 1층 로비에 널브러진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교육관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아

름다운 교육관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변화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 잔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천국과 같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도심 속 교회’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교회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현재의 장소에 교육관을 짓기로 하면서 안성 시내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쉼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안성제일교회가 ‘깊은 산 속 웅달샘’과 같이 지친 사람들이 잠깐 들러서 쉬어갈 수 있는 교회, 슬픔 가진 사람이 머물러 위로 받을 수 있는 교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성제일교회 창립 70주년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안성제일교회의 창립 70주년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한번 매듭짓고, 다음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도약대(跳躍臺)’입니다. 먼저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기억과 남아있는 상처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과감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참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목사와 함께 안성제일교회가 희망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루어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안성제일교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성제일교회 70주년 기념

축사

장금식 목사

안성제일감리교회의 70년사 발행을 축하합니다.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의 열정,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고, 나아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쉼 없이 달려온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 승리를 위해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장애물에 묶이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안성제일감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에 마음에 합한 교회로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져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열정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김과 사랑으로 안성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안성을 넘어 경기도,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70년사 발행을 축하하며, 모두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성제일교회 70주년 기념 축하의 글

하늘품교회
담임목사 박주호 (박영준 목사 아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성제일감리교회의 창립 70주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교회 70년사를 출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영광스런 자리에 축하글을 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이선진 담임목사님과 안성제일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선진 담임목사님으로부터 “70년사 축하글을 부탁드립니다. 안성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준 목사님과 관계된 분의 축하글이 들어가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는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축하글을 써야 하나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 3:1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안성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박영준 목사님이 안성을 떠나신지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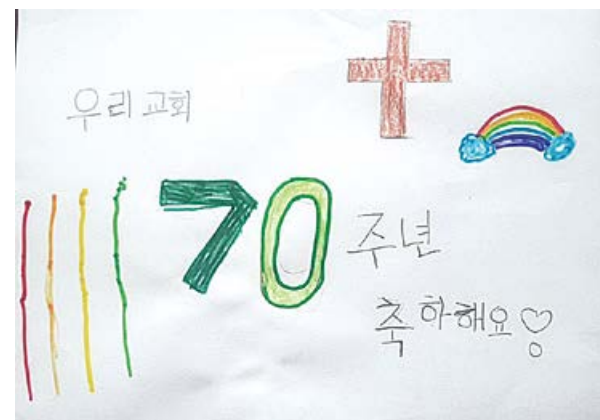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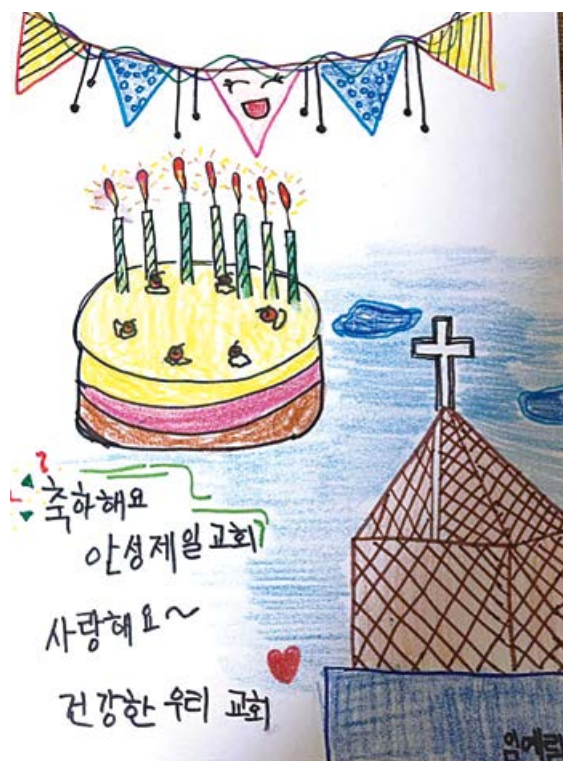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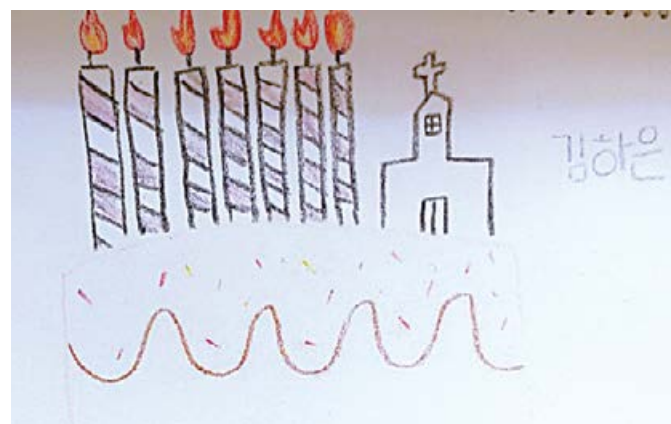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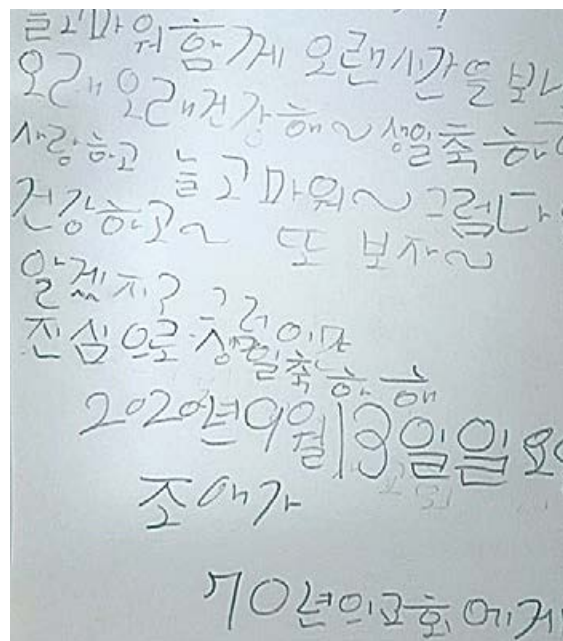
박영준 목사님은 어느 곳에서 언제까지 목회하시든지 그 열정이 변함 없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박영준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영준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저 하늘나라에서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안성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아끼고 섬기고 사랑할 것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며 축하하고 계실 것입니다.



70년의 교회 역사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안성제일감리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많이 낸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안성제일감리교회가 이번 교회 70년사 출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름답게 소문낼 수 있기를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70년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협력하여 이선진 담임목사님과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PART. 3

Cultivate - Cure -
Care - Change

안성제일교회의 4대 가치 - 4C

경작 Cultivate

치유 Cure

돌봄 Care

변화 Change

안성제일교회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안성제일교회의 가치 - 4C

주님의 은혜로 70년을 걸어온 안성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것입니다.

경작 Cultivate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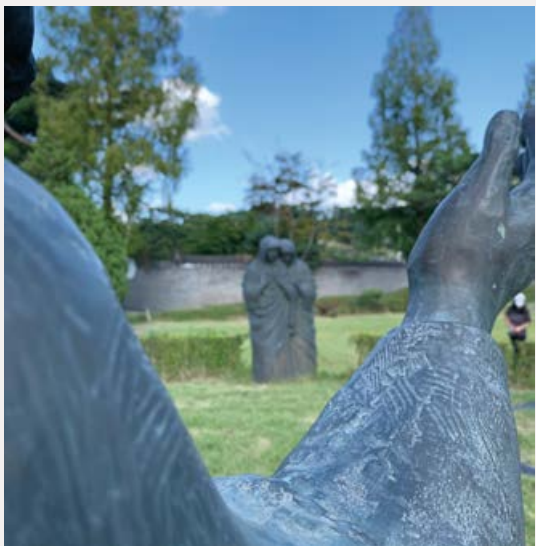
“Cultivate” 에스겔 36:34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던 이들을 경작하십니다. 세상으로 살 때는 황폐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때 에덴동산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들이 오고가는 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황폐하고, 적막하게 사는 지역과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경작으로 에덴동산이 되어,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경작되는 것이 안성제일교회의 가치입니다.



치유 Cure는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비움과 다시 채움이 일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기도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죄 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자량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수 있으며, 그 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살아갈 때,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입히시고, 세우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성제일교회의 가치입니다.



변화 Change는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 새가치를 꿈꾸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롬 12:2)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의 최종 목표는 나 자신만 경작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경작되고, 치유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치유되도록 돕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향해,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먼저 만나고 들은 자의 변화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회복되고 치유될 때, 그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안성제일교회의 가치입니다.

돌봄 Care은

다음 세대를 가꾸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학교가 있다면,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의 신앙을 세울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협력자인 교사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신앙이 점검되어야 하고, 바른 신앙이 세워질 때,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고 가꾸는 것은 안성제일교회의 미래이며, 이를 위해 교사를 준비시키고, 가정의 부모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성제일교회의 가치입니다.



Cultivate 경작

예배와 생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24)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삶의 터전인 세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예배드림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한 한 사람의 행위가, 세상에서 구별된 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과 행함이 마치 십자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전통에 따르면 예배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며,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 드리는 예배

안성제일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을 안성제일교회의 예배자들은 예배당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성제일교회 예배 공동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간 뿐 아니라, 예배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성제일교회 예배의 모든 언어는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설교자, 인도자, 그리고 기도 인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언어는 준비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회중들은 예배가 주는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과 경직됨을 뛰어넘어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안성제일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섭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준비합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인도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예배로 나아오기 위한 마음과 시간, 그리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드리는 예배는 준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쪽의 박사들이 아기 왕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났듯, 우리는 일상에서 잠시 떠나 주님을 뵈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상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 즉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최선을 다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성제일교회가 예배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 행하는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는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영적인 힘이 붙습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는 예배와 같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비판일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의 유격이 너무 큰 것을 두고 하는 비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린다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가 드러나려면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 성찬식의 일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고전 11:25)”

안성제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할 것이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도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나누신 목요일 저녁의 때를 출발로 삼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 예식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를 기념,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은총의 수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의미들이 담겨 있고, 경험되게 됩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이 성찬이 교회 예배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도울 것입니다. 안에서만 집례 되지 않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행해지도록 사역을 장을 확대하고 섬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집례 하는 성찬, 일터에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성찬, 예배 공동체로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 성찬이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이 일상이 될 때,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Cure 치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5)

시대의 혼탁함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힘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안성제일교회가 걸어갈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 1:14)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같고, 마치 육의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듯,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하듯,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먹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먹을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성제일교회의 말씀 묵상은 매일 삶을 통해 묵상하고, 고백하며, 점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진리가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을 지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목회자들의 기도가, 장로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흘러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달을 생존할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사람은 단 3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 매일 묵상하는 성경



〈메시지 성경〉의 번역가이자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 멘토였던故유진 피터슨은 말씀 묵상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 책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호흡에 비유했다면, 말씀은 ‘밥’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식사를 못 하면 건널 수 없어 하지만 정작 영의 양식인 말씀은 매일 읽거나 보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돕는 일입니다. 안성제일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은 새벽기도회와 연결되고, 주일예배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따라 묵상하며 일상에서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마치 거울을 보듯, 성경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옷깃을 다시 살피고 새날을 이하듯,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느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와 같아서 키질을 당할 때 바람에 날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키질을 통해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들려지는 세상 소리가 아닌,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삶의 진리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곳이 안성제일교회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매일 영의 풍성한 식사로 즐기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은 기도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안성제일교회 금요기도회의 목적은 모여 소리 내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나, 금요기도회는 소리를 내는 기도회입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들리며, 사탄에게도 들립니다. 여리고성은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수 6:5) 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소리로 사람을 일어나게도 하고, 앉게도 합니다. 즉 소리를 내어 영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안성제일교회의 기도 중 금요기도회는 이러한 기도의 뜨거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쁜 일상에도, 안성제일교회의 금요기도회는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의 장입니다.

● 중보기도 & 기도의 뜨거움

중보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머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롬 12:15)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로 머물고 있던 시선과 마음을 다른이에게 돌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Care 돌봄 교육과 가정

『다음세대를 돌보며 미래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복음 28:20)

세상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 명예, 부를 가르치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성벽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이들의 삶은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를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해에 부릴 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종자 씨입니다. 잘 가꾸고, 부릴 때, 풍성한 열매가 되기에, 교회에 있어서 이 일은 소중하게 일구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신된 교사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교사의 사명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나무 옆의 버팀목이 되듯, 사랑하며 응원하며 신앙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헌신된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는 더욱 든든한 거목으로 자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가장 좋은 선생인데, 이것을 잊고 세상 선생님들에게 맡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성장합니다. 기도의 등, 말씀의 등, 세상에서의 구별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세상을 구별할 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은 이어질 것이고, 주님의 명령과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걸어온 70년을 이어, 걸어갈 길 위의 주인공은 다음 세대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안성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입니다.



● 다음 세대 신앙의 자라남

교회학교의 일차적 신앙교육은 예배입니다. 주일, 준비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철저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사 한 명이, 교회학교를 살아 움직이게도 하지만, 함께 하는 교사의 협력이 구축될 때, 교회학교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라남에 가장 큰 역할을 교사의 사랑이고, 소명의식이며, 자신에 대한 인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향한 인내로 다가가야 합니다. 성경, 영성, 소통, 다양성 이해, 헌신, 비전 세우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교사학교를 통해, 교사를 세워가는 것이 다음 세대 신앙의 자라남입니다. 교사가 성장할 때, 아이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 다음 세대 신앙의 자라남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यो,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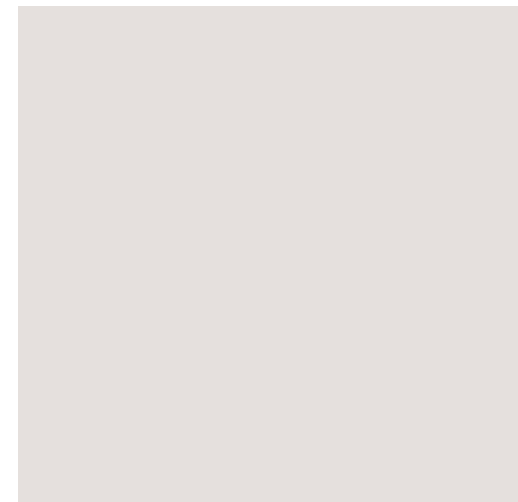
이 귀한 존재를 가정에서 어떻게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일차적 물음에, 부모의 주장이나, 욕심, 바램으로 가르치고 키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엡 6:4)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려면, 부모의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 길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교회는 가정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 등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를 돕고,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 터전 가꾸기

시대가 흐르면서, 자녀들의 교육열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동도 자녀들을 따라 젊은 가정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21세기 목회는 교회학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출산율의 저하가 교회학교의 감소와 교회 고령화의 일차적 이유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가진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이끌어 나갈 목회자가 준비되었는가? 교육 전문가가 있는가?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에게 신앙고백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설교와 목회에 반영 할 것인가? (부부생활, 자녀 양육, 사회문제, 영성훈련 등). 현재의 20-40대는 복음화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을 다음 시대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Change 변화 선교와 나눔

『복음! 그 능력의 증인된 삶을 살라』"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 전하는 전도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맛집이 있으면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 해주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맛집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려면 내가 맛보아야 합니다. 내가 맛보고 맛있으면 확신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하는 전도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안성제일교회는 목요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방식(전도지 전도, 청소 전도, 아파트 전도, 쓰레기봉투 나눔 전도 등)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매주 목요일은 주님을 전하는 날로 선포되고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나누는 선교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 미지로 나아갑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나누고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안성제일교회의 선교는 비전교회와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복음에 동참합니다. 또한, 1인 1 생명을 결연으로 맺고 지원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선교를 이어갑니다.



●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눔

안성제일교회 앞으로 걸어갈 70년을 준비하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비전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LOVE BRIDGE 70-70> 사역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는 교회창립 70주년을 맞아 미래 70년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역할로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나눔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의 사회나눔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교회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확립하고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섬김과 돌봄을 펼쳐가는 사역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밑반찬을 나누거나, 독거어르신 생신축하나, 정기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고령화 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의 나눔을 펼칠 것입니다.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돌보는 사역도 안성제일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 고민하고 펼쳐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안성제일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회로의 나눔입니다.



안성제일교회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걸음마

편안한 안식처

고향집

시계

안식처

새하늘 새땅

칠성사이다

믿음, 소망, 사랑

나의 보배, 사랑

나무

아버지의 품

엄마의 품

쉽

하나님의 품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마 비

예비하심

청년부의 김하은

주유소(에너지충전)

초석

소중한 곳

종합비타민

산소(O₂)

삶의 활력소

충전기

천국

힐링캠프

골고다의 보혈

로템나무

내 영혼의 느티나무

PART. 4

부록

연혁

역대 담임목사, 역대 장로

현재 교회를 섬기는 이들

주보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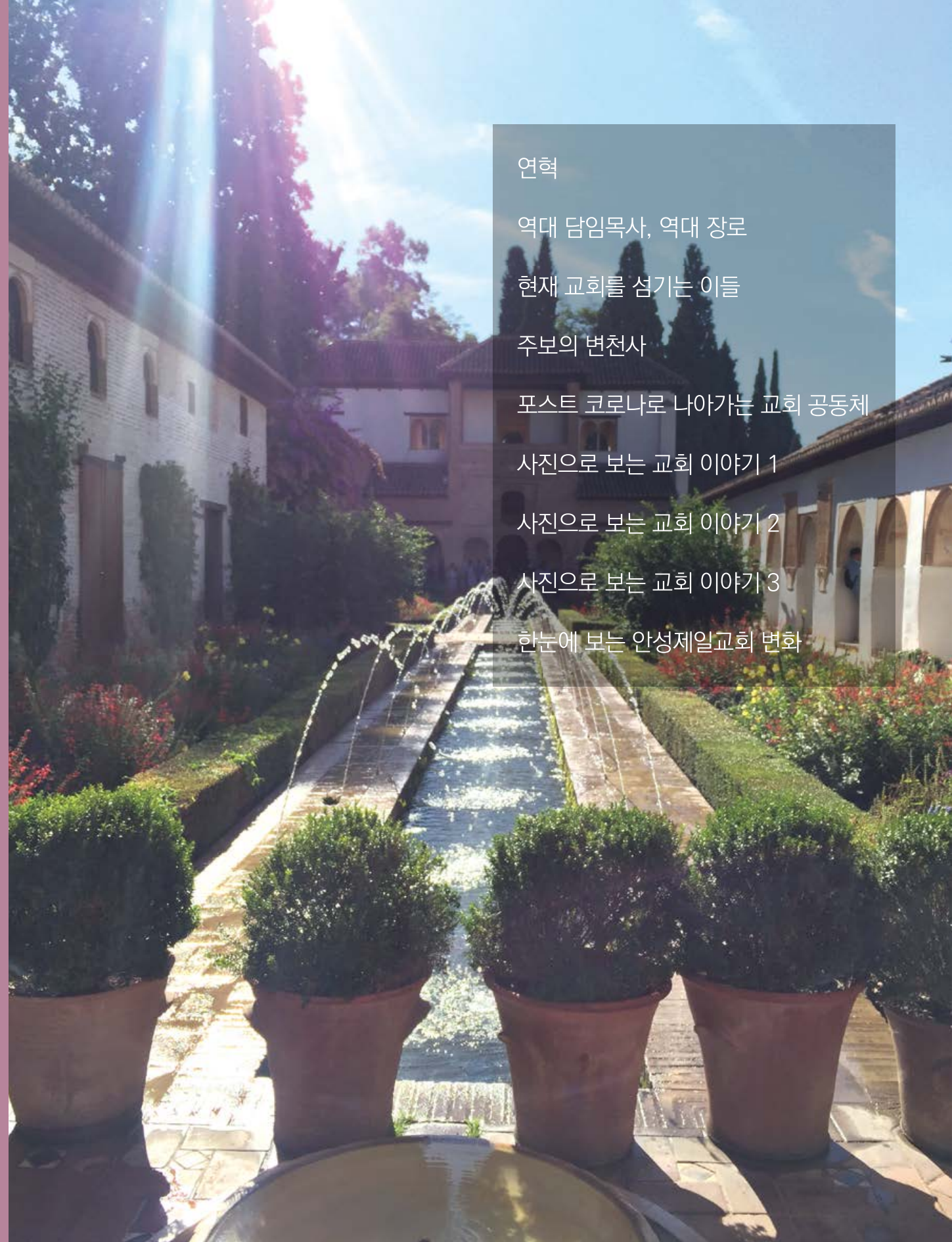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1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2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3

한눈에 보는 안성제일교회 변화



안성제일교회
연혁



- 1950. 9. 20. 금광면 신양북리 이영예권사 댁에서 안성교회가 창립하여 손창록목사 초대담임목사로 부임.
- 1951. 8. 이길수 목사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
안성읍 성남리150번지에 대지(242평)를 구입하여 이전.
- 1952. 4. 안성읍 성남리에 40평 교회를 건축.
- 1953. 4. 김진태 목사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
- 1955. 4. 유명희 목사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
- 1957. 9. 이종찬 목사 제5대 담임목사로 부임.
- 1959. 4. 이영수 목사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
- 1962. 4. 이길수 목사 제7대 담임목사로 부임.
- 1964. 2. 황소향 권사 천안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
- 1972. 2. 안봉삼 권사 천안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
- 10. 안성읍 동본리 459번지에 대지(243.1평)를 구입하여 이전하고 교회를 신축(180평).
- 1973. 5. 신축교회 봉헌예배를 드림.
- 1977. 4. 김예중 목사 제8대 담임목사로 부임.
- 5. 이길수 목사 은퇴찬하예배를 드림(원로목사 추대).
- 1980. 3. 대지(33.2평)를 구입.
- 9. 2. 박영준 목사 제9대 담임목사로 부임.
- 9. 30. 남부연회 천안지방회에서 중부연회 평택안성지방회로 편입.
- 1981. 2. 22. 증축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황소향 장로).
- 3. 23. 중부연회 평안지방으로 분할.
- 1982. 2. 16. 제1회 평안지방회가 개최.
황소향장로 은퇴찬하예배와 최복래권사 명예장로로 추대.

2. 16. 정선빈, 김철제, 김학래, 이정식 권사
제1회 평안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안수.

1983. 6. 5. 교회증축(113.5평)을 기공(준공허가 1984.4.8.).

1984. 4. 8. 안성교회의 명칭을 안성제일교회로 변경.

5. 15. 교회증축 봉헌예배와 황소향 장로 은퇴찬하예배 드림.

1985. 10. 21. 교회주택(31평)을 구입(송인중앙연립).

11. 10. 주택봉헌과 정선빈, 김철제, 김학래, 이정식 장로 취임예배를 드림.

5. 30. 주방(11평)을 증축.

7. 10. 대지(8평)를 구입.

1987. 4. 15. 박영준 감리사 취임예배를 드림.

8. 20. 교회역사 편찬위원회 구성(위원장 황소향 장로).

9. 14. 부속건물 기공(15평).

11. 20. 준공.

1988. 10. 20. 교회수리 및 공조닥터 설치(기계식11평증축 및 차고).

1989. 2. 14. 황인근, 심일용 권사가 제8회 평안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안수 받음.

9. 19. 동본리17의 대지(76평)를 구입. (현재대지 360.3평 건평361.5평)

1990. 10. 21. 창립40주년 기념 및 황인근, 심일용 장로 취임예배 드림.

4. 15. 박영준 목사 평안지방 감리사로 취임.

11. 20. 옥산리438-21번지 대지(54평)를 구입(개척교회 대지).

1992. 5. 11. 안성제2감리교회 개척 설립하여 봉헌. (교회 및 주택33평)

10. 10. 교육관 수리.

1993. 10. 19. 교회주택(46평)구입(봉산리42번지 한주A101동 803호).

1994. 9. 23. 한순동 목사 제10대 담임목사로 부임.

1995. 3. 1. 한성순 심방전도사 부임.

3. 3. 교육관으로 콘테이너 박스 구입 및 설치.

1996. 3. 김재만 목사 부목사로 부임.

4. 도기리 답1,000평을 구입(구입가 4억).

1996. 8. 1. 이정옥 심방전도사 부임.

1997. 2. 12. 안성감리교회 개척 및 한순동 목사 안성감리교회로 부임(안성교회개척비 대지 1,000평)
(구입가 4억), 현금: 2억, 송인연립 시가: 6천만원, 승용차 구입가: 약2,000만원

1997. 2. 이인식, 변영호, 임무빈, 임용묵 권사가 평안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

2. 23. 한도전 목사 제11대 담임목사로 부임.

8. 3. 김석범 목사 부목사로 부임.

9. 28. 권혁상 목사 부목사로 부임.

1998. 2. 17. 이정근, 오원웅, 배길원, 정혜영 권사가 경기남지방에서 장로로 피택.

1999. 5. 24. 신성재 목사 부목사로 부임.

7. 15. 권영국 목사 제12대 담임목사로 부임.

7. 18. 김유신 심방전도사 부임.

8. 1. 김정원 심방전도사 부임.

11. 15. 박상내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0. 2. 8. 류희정, 이대희 권사가 제3회 경기남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

10. 1. 창립50주년기념예배 및 장로취임(10명) 예배드림.
(취임장로: 이인식, 변영호, 임무빈, 임용묵, 이정근, 오원웅, 배길원, 정혜영, 류희정, 이대희 장로)

2002. 3. 10. 조상희 수련전도사 부임.

5. 5. 신종수 목사(뉴질랜드)본 교회소속 선교사로 파송.

8. 4. 오정임 심방전도사 부임.

2003. 8. 10. 김형석 목사 제 13대 담임목사로 부임.

2004. 1. 5. 고창석 수련전도사 부임.

2005. 1. 30. 최한정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6. 12. 11. 담임목사 사택 구입(대지66평, 건편60평, 2억1천만원).

12. 24. 김경애 심방전도사 부임.

2007. 5. 6. 김귀호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09. 1. 4. 양현주 심방전도사 부임.

4. 17. 김형석 목사 경기남지방 감리사로 취임.

2012. 9. 2. 성전 리모델링 감사예배 드림.

2013. 10. 6. 전거듭 교육전도사 부임.

10. 11. 교회 건물 수리(기도실,사무실,창고,4층예배실)

11. 3. 장금식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4. 6. 담임목사 사무실 수리.

10~11. 관리사택 수리(리모델링).

2015. 2. 15. 류승빈목사 제14대 담임목사로 부임.

12. 3. 주택구입(동본동5번지), 대지246㎡, 건평127.13㎡ (2억3천5백만원)

2016. 1. 1. 전거듭 수련전도사로 부임.

1. 1. 이희원 교육전도사로 부임.

2017. 2. 1. 박은석 목사 부목사로 부임.

2. 11. 김기승, 이병주 권사가 안성지방에서 장로로 피택.

12. 교육관건축(중앙3길32번지).
대지464.4㎡,건평962.66㎡

2018. 1. 7. 김해별 목사 부목사로 부임.

4. 22. 리모델링 및 교육관 완공기념 감사예배를 드림.

5. 6. 송영광 목사 부목사로 부임.

2019. 2. 16. 고달수 권사가 제5회 안성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

12. 22. 이선진 목사 제15대 담임목사로 부임.

2020. 1. 70주년 준비위원 구성(70주년 출판위원, 행사기획위원, 사회나눔 위원)

1. 12. 이수진 교육전도사로 부임.

2. 2. 남새배 목사 부목사로 부임.

2. 15. 변영호 장로 제6회 안성지방회에서 은퇴.

5. 12. 이수진 전도사, 목사 안수. 부목사로 부임.

10. 25. 창립70주년 감사예배 드림. (전교인 성찬-성전예배, 온라인예배)
전교인 참여 오디오북-시편150편
기아대책 에클레시아 클럽 위촉

안성제일교회

역대 담임목사



- | | |
|--------------------|---------------------|
| 1950. 9 제1대 손창록 목사 | 1977. 4 제8대 김예중 목사 |
| 1951. 8 제2대 이길수 목사 | 1980. 9 제9대 박영준 목사 |
| 1953. 4 제3대 김진태 목사 | 1994. 9 제10대 한순동 목사 |
| 1955. 4 제4대 유명희 목사 | 1997. 2 제11대 한도전 목사 |
| 1957. 9 제5대 이충찬 목사 | 1999. 7 제12대 권영국 목사 |
| 1959. 4 제6대 이영수 목사 | 2003. 8 제13대 김형석 목사 |
| 1962. 6 제7대 이길수 목사 | 2015. 5 제14대 류승빈 목사 |

안성제일교회

역대 장로



황소향 장로

안봉삼 장로

정선빈 장로

김철제 장로

김학래 장로

이정식 장로

황병선 장로

곽인성 장로

이주환 장로

황인근 장로

심일용 장로

이일환 장로

이인식 장로

변영호 장로

임무빈 장로

임용묵 장로

이정근 장로

오원웅 장로

배길원 장로

정혜영 장로

류희정 장로

이대희 장로

안성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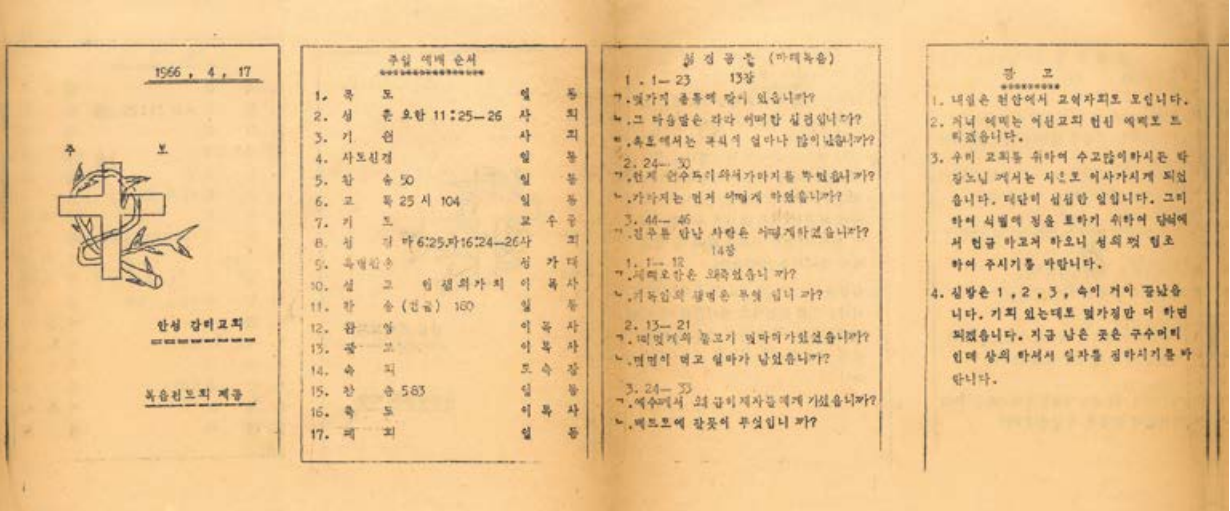
현재 교회를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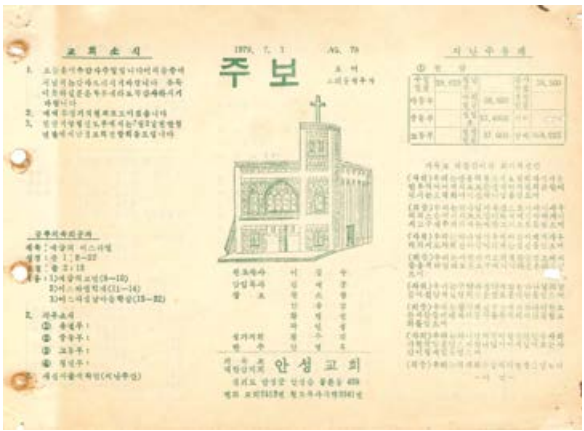
교역자	관리	행정	시무장로
이선진 목사	이재천 권사	양현주 권사	김기승 장로
송영광 목사			고달수 장로
남새배 목사			이병주 장로
이수진 목사			



어디까지나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세.



안성제일교회
주보의 변천사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 담임목사 이선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사회와 역사는 물론이고 교회에 신학적 질문과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도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와 사회 안에 산적해 있던 것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수면 위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 사회 변화 안에서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목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1. 공동체성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히브리서 10:25)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이며, 성령께서 초대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모여야 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여정이 함께 고민되고 고백되어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야 합니다.

공동체성이 있지만, 우리는 각자 서로가 소중한 주님의 작

품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성이 강한 젊은 세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음 세대,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 달리는 청장년, 황금기를 누리는 중년, 세월의 인고를 모두 경험하여 정금과 같이 된 노년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공동체는 연합의 아름다움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맞이한 사회는 공동체 모임을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다시 모임 날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모임, 안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통의 통로들(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열리되, 그 곳에서 다양하게 연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로 인해 채워져 있었던 삶의 자리를 스마트폰과 미디어, 가족, 혹은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어질 때 일어날 소외의 현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령화 된 사회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더 소외 되지 않도록, 비대면 소통의 방식인 전화 안부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연결고리들을 새롭게 맺고 나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형식에 힘쓰는 때가 아니라, 흠어진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이 고백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형식의 목회로 전환을 힘써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교회 전 성도들이 함께 고민할 과제가 되었고, 이것을 펼쳐가는 것은 것이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2.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핸드폰과 TV로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공식 개설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월 이용자가 1억만명, 하루 조회수가 20억 건을 넘습니다. 미국 3대 TV방송사의 프라임 시간대 시청자의 수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2013년 영국의 파이널셀타임즈는 C세대(Contents Generation)의 등장에 대해 알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C세대는 접속(Connection) 창조(Creation) 커뮤니티(Community) 큐레이션(Cur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연결된 행동(Connected behavior)’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새신자들에게는 현장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온라인 예배를 접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교회의 과제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징검다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온라인을 더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 속에서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온라인 성찬과 세례, 온라인 성경학교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지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할 사역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1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2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돌같이
네가 너하듯 강도
가장기
내가 가장노라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3



너는
물대왕이
같이
물이 끊이지
아름다운
사람
같이
살아
가라

ISAIAH 58:11
You wi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한눈에 보는 안성제일교회의 변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위하는
공동체



7월의 한가운데쯤

편집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신양복리, 이영예 권사님 댁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양복리’와 ‘이영예 권사’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 70년 전 그 집을 찾는다는 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7월 26일.

다시 한 번 방문하면서

이영예 권사님 댁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곳에서 연로하신 어르신을 만나며

1950년 그 곳에서의 예배 사실과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만남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 년 반의 시간 동안 이 책을

함께 준비하면서,

뒤에서 기도로 든든하게 받쳐주신 양현주 권사님,

간사로서 곳은 일도 마다치 않으신 최정옥 집사님,

귀한 자료들로 오래된 기억을 살려주신 서동주 권사님,

어떤 부탁이든 기꺼이 다 수용해 주신 송은정 집사님,

위원 중 청일점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신 변정길 집사님,

회사에서 눈치 보며 야근하며 자료 정리해 주신 백지애 선생님

서울 가는 막차 시간 쫓기면서도 끝까지 챙겨주시던 유원선 선생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 주 호 편찬위원장



[이 책을 구성하고 만든 이들]

70년사편찬위원회(빌드업 70)	
위원장	정주호
편찬위원	양현주, 서동주, 송은정, 최정옥, 변정길, 백지애, 유원선
캘리그래피	송영광 목사

경기도 안성시 중앙2길 43
전화 031-673-3600
팩스 031-673-3601

안성제일교회 www.afmc.or.kr



편 | 편찬위원을 하며
찬 | 찬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향한
위 |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 | 원하건데 이책을 보는 모든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지켜 오늘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옛 성도님들로 인해 뭉클했고,
70년간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70년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70년의 역사를 돌아 보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70년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나간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70년사



